

창원 및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한
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대정부 촉구 건의

2022. 3

- 건의처 : 경상남도
경상남도의회

창원 및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대정부 촉구 건의

I. 현황

- 국토의 11.8%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·교육·문화·의료 등 대부분의 국가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고,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%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과의 GRDP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
- 반면, 비수도권은 전통 주력산업의 부진과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이처럼 점차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별 특화된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
- 이에 지난 2019년 완료된 공공기관 제1차 지방이전의 효과에서 보듯이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, 그동안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음
- 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. 이에 조속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,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
- 또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됨. 이에 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교통여건이 불리한 우리지역은 더욱 긴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

- 특히,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경남경제의 중심도시인 창원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 성장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공공기관 유치에 절실한 요구됨. 이는 비단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
- 경남산업의 중심도시인 창원외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중심의 공공기관과 지역 특화산업을 지원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창원산업은 물론 경남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임
- 이와 관련하여 창원외 민·관·학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 ‘공공기관 창원외치 범시민운동본부’를 출범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지자체 구성원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외 경상남도의회외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었을 때 보다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

II. 건의

-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강력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
- 창원 외 경남경제가 함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중심의 공공기관이 창원외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건의

2022년 3월 31일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**공공기관 창원외치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** **구자천**